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 Writer

(사)한국포장협회

### Contents

- I. 서론
- II. PET필름 수급 동향
- III. NYLON필름 수급 동향

### I. 서론

포장용, 인쇄용, 절연성 케이블용, 래미네이션용, 테이프용 등 포장용 필름은 물론 그래픽, 전기 및 전자 등 각종 산업에 널리 쓰이고 있는 PET 필름은 독성과 악취가 없는 위생상 안전한 필름이다. 따라서 까다로운 식품 포장용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IT 관련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광학용 및 전기전자용 기초 소재로 그 쓰임새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한국포장협회는 2016년 결산을 기준으로 국내 최대의 PET필름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SKC(주)를 비롯해,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PET필름 생산수급 동향을 살펴보았다.

덧붙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효성의 NYLON필름 생산 수급 동향과 함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 II. PET필름 수급 동향

국내 최대의 PET필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SKC(주)는 12개의 라인에서 13만 5,6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42,000톤을 수출하고 63,000톤을 국내시장에 공급했다. 2015년 대비 라인은 16개에서 12개로 줄었으나 생산량은 13만 5,600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출물량이 2015년 32,000톤에서 42,000톤으로 1,000톤 가량 늘어났고, 내수공급량은 93,000톤에서 5,6000톤으로

〔표 1〕 PET필름 수급 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2	135,600	42,000	63,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9	87,600	36,000	51,600
화승인더스트리	1	16,000	3,000	13,000
(주)효성(추정)	3	56,000	4,000	30,000

37,000톤이나 줄어들었다. SKC는 지난해부터 산업·포장용 폴리에스티(PET) 필름 사업 부문을 재정비하고 있다. PET필름 부문은 폴리우레탄 원료 등을 생산하는 화학 부문과 함께 SKC 사업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시장 등 전망산업 침체로 지난 몇 년간 수익성이 악화됐다. 2011년까지 1,000억 원대였던 영업이익은 2012~2013년 700억 원 안팎으로 감소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에 약 231억 원의 구조조정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손실 197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SKC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PET필름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받아 생산직 근로자와 간접인력을 정리했고, 일부 생산라인을 축소 운영하는 등의 조치도 단행했다. 더욱이 SKH 인수로 베이스 필름

제조에서 가공까지 일괄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SKC 관계자는 “향후 SKH와 통합 시너지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수요처 및 선진 기술업체와의 전략 제휴, 고부가·고기능 제품으로의 집중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및 본원적 경쟁력 확보와 가치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현재 9개 라인의 PET필름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연 87,600톤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가운데 3,600톤을 수출했으며, 내수시장에 51,600톤을 공급했다. 동사는 30년 이상 광학용, 식품포장용, 절연용, 산업자재용 등 다양한 PET필름과 나일론 필름을 생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 투명폴리이미드(상품명 CPI : Colorless Polyimide)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디스플레이 시장

의 조기 선점을 위해 양산설비 구축하고, 중국 필름시장 진출에 성공한 강소기업과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필름전문 가공업체인 (주)케이에프엠과 필름사업 분야의 상생 협력을 위한 교류협정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MOU를 통해 공동 연구 개발을 실시, PET 기반 소재를 개발하고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 해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또한 고기능 필름 개발, 제품 신규 용도 발굴 및 개발, 정기적 기술교류 및 개발 제품의 사업화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에프엠의 기술력과 중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케이에프엠은 코오롱인더스트리로부터 고품질의 베이스필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동으로 신규 제품을 개발하며 기술 노하우를 전수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코오롱 PET필름의 중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포장용 합성수지제품의 제조와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주)화승인더스트리는

PET필름을 비롯해 BOPP, 통기성 필름, EVA시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용 포장재에서 산업용까지 널리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다.

화승은 PET필름 1개 라인을 통해 16,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시장에 13,000톤을 공급했고, 3,000톤을 수출했다.

화승 관계자는 PET필름시장에 관해 “수요 감소 및 수입 필름 물량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모바일 관련 사업의 베트남, 중국으로의 전환에 따른 국내 산업용 수요의 감소와 큰 단가 차이로 인한 수입 필름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수입 필름의 품질 수준 향상으로 산업용에서도 그 유입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화승은 원가 절감 등의 자구책 마련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주)효성은 1997년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을 시작으로 2012~2013년 폴리에스터 2개 라인을 증설했다. 현재 총 3

개의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56,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00톤을 수출하고, 3만톤을 내수로 공급한 바가 있다.

효성의 PET필름은 전체의 60% 정도가 포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 35%, 광학용으로 5% 가량이 쓰이고 있다.

### Ⅲ. NYLON필름 수급 동향

국내 NYLON필름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2개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지난해 1만 톤의 NYLON필름을 생산했다. 이 가운데 4,000톤을 수출하고 6,000톤을 국내시장에 공급했다.

국내 NYLON필름시장은 수입산 필름의 감소로 한동안 수급을 맞추기 쉽지 않았으나 최근 공급 완화로 수요-공급의 밸런스가 개선됐다. 다만 국내 생산업체의 제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공급 부족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관계자는 “겨울철 섬유 성수기로 인해 원료인 카프로락탐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더불어 카프로락탐의 원료인 벤젠 제조업체의 화재로 수급 상황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원료 수급 불안이 수입산 필름 공급 축소로 이어진다면 일시적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기계 증설로 인한 잉여 물량이 2018년 하반기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생산성,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고객에게 필요한 B/S, A/S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시장 경쟁 심화로 수출량 증대 및 시장 개척, 거래처수 확대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NYLON필름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7년 초 발생한 수급 문제가 다소 개선되었고 2016년에 비해 수입량이 감소했다”며 “국내 업체의 M/S 증가, 아이템 개발 및 신규 제품으로 인한 팔목할 만한

[표 2] Nylon필름의 수급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8,400	4,200	4,200
(주)효성(추정)	2	9,500	4,500	5,000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2	10,000	4,000	6,000

증가는 없으나 소포장 제품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6년부터 NYLON필름을 생산한 (주)효성은 2004년 NYLON필름 설비를 증설, 현재 2개 라인에서 연1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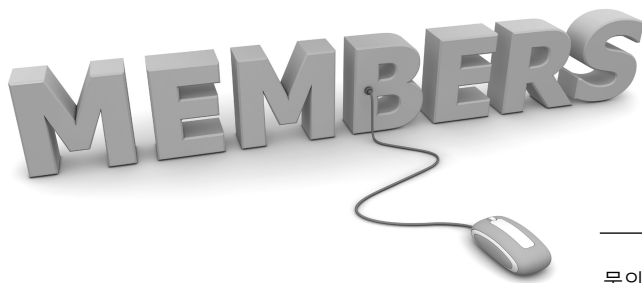
동사는 지난해 4,000톤을 수출했으며, 5,500톤을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등 2015년 대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관계자 역시 전년과

동일 규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NYLON필름시장은 현재 중국산 NYLON 수입 증대로 인해 국내 제조사의 경우, 단가 인하 압박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총 생산능력 8,400톤 가운데, 4,200톤을 수출하고, 국내에 4,200톤을 공급했다. 2015년 대비 1,200톤이 늘어났다.

AMIDROLL®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Nylon필름으로, 식품 및 기타 포장제품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섬유제품 및 Baloon제품의 소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뛰어난 기계적 강도와 유연성으로 인쇄적성을 뛰어나며, 포장인쇄에 우수한 적성을 나타낸다. 또한 투명성과 광택이 뛰어나 수산가공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면류 포장과 Baloon 제품 등에 사용된다. 코오롱 관계자는 “NYLON필름시장의 성장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특수용도 개발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W]



##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